

충북 최초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첫 삽'

옥천군, 교동리 일원 116억 투입 2022년 12월 개원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강당, 가족면회 공간 등 구축

옥천군에 도내 최초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선다. 옥천군은 7일 충북 도내 최초로 설립되는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공사' 기공식을 옥천읍 교동리 279일원에서 개최했다. 시설은 건축면적 1천605㎡, 연면적 2천969㎡의 규모이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정원 70명,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정원 40명으로 총 110명의 입소자를 위한 공간이다. 총 사업비 116억원을 투입해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2년 10월 준공해 12월 개원할 예정이다. 시설내부는 소규모 생활단위로 공간

을 구성해 개인의 자율적 일상생활 확보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구조 등 집과 같은 친숙한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또한,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강당, 가족면회 공간, 자연친화적 환경 등이 안정되고 편안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군민의 30.6%가 노인인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옥천군은 2019년 옥천군치매안심센터를 설치, 환자중심의 치매관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 4월 옥천통합복지센터를 개원하여 노인·아동·다문화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허브화하여 중 합복지서비스 제공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신축 기공

충북 옥천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기공식이 7일 열렸다.

을 실현하고 있다"며 "2022년에는 장애인복지관과 반다치체육센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여 빈틈없는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공적 돌봄강화를 위해 추진해 왔다.

충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치유의 시간 제공

코로나19 대응·감정노동 종사자 재충전 기회

충북도가 사회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시설종사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대응과 감정노동 등으로 지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힐링 프로그램은 비대면 프로그램과

대면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치유의 정원 원예교실', '힐링 요리교실' 등의 강의를 통해 코로나블루 극복과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각 교육일정으로는 '치유의 정원 원예교실'은 8월 17~31일 '힐링 요리교실'은 8월 17일~10월 8일까지 비대면 강의로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중 충북도 보조금 지원 시설종사자이며, 그 외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시설 종사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원예·요리교실별 각 120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종사자는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시설을 통해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홈페이지(www.cwin.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되며, 최종 교육대상자는 선정심의회

의 심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대면프로그램은 제천 휴(休) 힐링, 영동 힐링스테이, 남해 힐링메고 남도에 서를 진행해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면프로그램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만 참여 가능하다. 대면프로그램은 모두 120명을 선발해 10~11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해 추후 모집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15일 충북대학교병원을 '충북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했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충북대병원 지정

의료종사자·장애인 가족에 교육 등 각종 서비스 지원

충북도는 15일 충북대학교병원을 '충북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앞서 이달 초 보건복지부 2021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에 선정됐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과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연계하고,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하는 기관이다. 지역 내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와 임신·출산 등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서비스, 장애 친화 건강검진, 재활의료 서비스 등을 연계하며, 의료종사자와 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도 지원

한다. 충북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이달 중 충북대학교병원 내에 설치된다. 2023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총 13억 6천만원을 투입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3년마다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충북도는 충북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장애인을 위한 각종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들을 연계·지원해,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충북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 충북 안전체험관 개관

지진·생활·화재·어린이 등 20개 종류 안전체험시설



6일 '충북 안전체험관' 개관식에서 참석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충북 안전체험관이 6일 개관했다.

충북도와 소방청은 안전체험관이 이날 개관식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이시종 도지사, 김병우 교육감, 박문희 도의회의장, 배덕근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등이 참석했다. 충북안전체험관은 재난을 넘어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모토로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상 2층(건축면적 2946㎡) 규모로 지어졌다. 지진안전, 생활안전, 어린이안전, 화재안전 등 5개 체험장에 20개 종류의 체험 시설을 갖췄다.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소방안전강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13명이 교관으로 있다. 체험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 하루 4차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연휴는 휴관이다. 하루 최대 교육인원은 375명으로 연간 7만5000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험관 시설이용 요금은 무료이며 예약제로 운영된다. 소방 관계자는 "수난안전체험관과 스마트 안전체험관으로 이어지는 재난안전복합타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충북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체험관은 충북 재난안전체험 복합타운 조성사업의 1단계 사업이다. 2단계 사업인 수난안전체험관 사업이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이다. 추후 3단계 사업인 스마트안전체험관 사업이 추진된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hanmail.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칼라흑백출력

복사-출력 및 제본의 명가

제천시, 노인친화도시 조성 박차

제천시실버복지관 개관식 가져 60세 이상 노인 누구나 이용



제천시실버복지관 개관식에서 이상천 제천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제천시가 지난 9일 제천시실버복지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이상천 제천시시장과 엄태영 국회의원, 배동만 제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기관단체장 및 복지시설의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여 진행했다. 제천시실버복지관은 지역 내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고압동 공공실버주택 지상1층에 위치하

여 연면적 1047.4㎡(건축면적 760.6㎡)으로 건립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대강당,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카페, 식당 등 노인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시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중요한 노인문제인 질병·빈곤·외로움

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도록 노인전문 상담사업, 위기 및 취약계층 어르신 사례관리, 지역사회돌봄사업, 건강생활증진사업, 노년 사회화교육사업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상천 시장은 "제천시실버복지관이 지역어르신들에게 활기

찬 노후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실버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0조, 제25조에 의거하여 제천시가 지정한 기관이다.

제천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단기보호센터' 개소

지식·기술 교육·상담 등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 향상 기대



지난달 30일 제천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제천시는 지난달 30일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공약사업으로 장애인에게 보다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용정원 10인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고 지난 5월 (제)제천복지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제천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교육 제공, 야외활동,

취미생활 및 정서안정활동 지원,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박은영 센터장은 "제천시장애인 단기보호센터가 제천시 장애인 복지 향상의 큰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천 시장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정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력자와 안전장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천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는 장애인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이상천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충주의료원 '저소득 어르신 건강돌보미' 시행

혈액종합검진·대상포진 예방접종 제공

충주의료원이 저소득층 홀몸노인 180명에게 정밀 혈액종합검진

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제공한다.

의료원은 오는 11월까지 충주·제천·음성·괴산·단양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층 어르신 건강돌보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통해 홀몸노인들의 감염병 발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의료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의료원 공공의료팀(043-871-047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흥덕보건소,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운영

혈액종합검진·대상포진 예방접종 제공

청주시 흥덕보건소가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상자는 흥덕구에 거주하는 재가 장애인이다. 방문재활서비스는 물리치료사와 간호사가 한 팀으로 구성돼 직접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진행

한다. 이 서비스는 사전에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 건강 체크를 위한 혈압·혈당 검사와 장애별 맞춤 운동을 실시한다.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근육 기능 향상을 위해 소프트볼을 제공하고 평상시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

지도한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흥덕보건소(043-201-3589)로 신청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ssn@naver.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 '최우수기관' 선정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자활사업 수시 연계 등 추진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센터장 박용훈)는 보건복지부가 주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음성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12년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최우수기관 5회, 우수기관 2회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번 평가는 지역자활센터의 역량강화와 자활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국 237

곳의 지역자활센터를 도시형·도·농 복합형, 농촌형의 유형으로 나눠 2019년~2020년까지 2년간의 운영 실적을 평가했다. 특히 음성지역자활센터의 최우수기관 선정은 군의 유익적인 협력도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군과 음성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자활사업에 수시로 연계하고 역량 강화와 작업교육을 병행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해 왔다. 성과평가 지표 내 취·창업률에서 2019년 11.1%, 2020년 9.3%를 기록하고 수급자의 급여변동률 또한 2019년 20%, 2020년 30%를 달성해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훈 센터장은 "앞으로도 자활사업 활성화와 참여자의 경제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지역자활센터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추가 운영비 지원과 '우수지역 자활센터' 인증 현판을 받는다.

청주월드휴먼브리지, 후원금 2500만원 기탁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10가구... 집수리 비용 지원



국제구호개발NGO인 청주월드휴먼브리지는 13일 청주시를 찾아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 후원금 2500만원을 기탁했다.

국제구호개발NGO인 청주월드휴먼브리지(대표 안광복)가 13일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 후원금 2천500만 원

을 청주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한병덕 시장과 최충진 청주시의장, 청주월드휴먼브리지 김진희 사무총장

과 김점규 감사, 정명원 부목사, 사업 수행기관인 청주시주거복지센터의 한정현 센터장이 참석했다. 시는 이날 전달받은 후원금으로 청주시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10가구의 주택 개·보수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진희 청주월드휴먼브리지 사무총장은 "청주시칼피미봉사단이 추진하고 있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집진소와 집수리 활동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에 보탬이 되고 봉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말했다.

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성 강화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준 직원... 승합차량 상시 운행



단양군은 지난 5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단양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 강화에 나선다. 군은 올 상반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위·수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5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직영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단양다목적체육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 운전원 3명, 이동지원 업무 인력 4명을 채용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센터에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

한 승합차량 3대를 운행하며 보행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용 대상은 보행 장애나 만 65세 이상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 운행 구역은 제천·원주 등의 병원 인근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기본요금)은 기존과 동일한 5km까지 1500원이다. 5~30km 이용 시 1km당 300원, 30km 이후부터는 1km당 600원의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군은 벽·오지 주민들의 이동편의성을 보장하는 교통약자 복지 모의단 '행복나드리버스'와 '시골마을 행복택시'도 운영하고 있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 구분 | 기부 식품군 | 모집가능기한 | |
|----------|----------------------------|------------------------------|-----------|
| 가공 식품 | 제과류 |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 |
| | 즉석식품 |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 최소 30일 이전 |
| | 냉동식품 |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 |
| | 통조림 | 참치, 정조림, 과일통조림 등 | |
| 정류 및 식용류 | 정류 |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 |
| | 소스류 |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 최소 30일 이전 |
| | 기름류 | 식용유, 참기름 등 | |
| 음료류 |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 최소 30일 이전 | |
| 신선 식품 | 육가공류 | 햄, 소시지, 베이컨 등 | 최소 7일 이전 |
| | 농산물 |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 |
| 제빙류 |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달일) | |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 구분 | 종류 | 모집가능기한 |
|-------------|--------------------------------|-----------|
| 세제류 |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 최소 90일 이전 |
| |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 최소 60일 이전 |
| 휴지류 | 화장지 | 최소 60일 이전 |
| | 물휴지 | 최소 90일 이전 |
| 수건류 |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 최소 60일 이전 |
| 기저귀류 |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 최소 60일 이전 |
| 신체 위생용품류 |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 최소 90일 이전 |
| |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 최소 60일 이전 |
| 여성 위생용품류 | 생리대 | 최소 60일 이전 |
|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 최소 60일 이전 |
| | 가정용 살충제 | 최소 90일 이전 |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법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기부혜택
기업 및 개인이 푸드뱅크·마켓에 식품·생활용품품을 무상으로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100%~10%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옥천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옥천성모병원·예인의원 2곳 운영... 응급실·접근성 장점

옥천군은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2곳을 지정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전담의료기관은 의료법인 힐링의료재단 옥천성모병원과 예인의원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곳이다.

옥천성모병원은 지역 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내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1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24시간 진료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인의원은 주 진료과목이 소아청소년과이고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던 경험을 가진 1차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쉽게 찾는 '동네의원'이라는 접근성이 장점인 곳이다.

군은 2020년 11월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상담조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쉼터 2곳에서 학대 신고접수, 상담조사를 진행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아동학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해 옥천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4건으로 도내 군 단위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2번째로 건수가 많은 편이다.

정지수 주민복지과장은 지정서



28일 옥천군이 관내 옥천성모병원과 예인의원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를 전달하며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협조해주시는 2개 의료기관에 감사드립니다"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과 의료기관이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옥천군, 2021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

청성면 '청성 어린이 행복센터' 선정... 특교세 3억 원 지원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옥천군 '청성 어린이 행복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은 합계 출산율 0.84명의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

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고, 저출산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인 행복센터 조성사업이다.

각 시·도별 사전심사를 통해 올라온 17개 사업 중에서 민간 전문가의 서면, 현장, 발표심사를 거쳐 옥천군을 포함한 5개 사업

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옥천군은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청성면 내 유류 건물물 '청성 어린이 행복센터'로 세단장 한다.

옥천군은 그동안 돌봄 시설이 없고 청성초등학교 폐교 위기 등으로 출산·보육 관련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청성 어린이 행복센터'는 출산과 보육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학교 밖 돌봄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충청북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인 옥천군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괴산군 '몸 튼튼 슈퍼키즈 승마서비스' 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발굴... 복지사각지대 해소

괴산군은 오는 9월부터 '몸 튼튼 슈퍼키즈 승마서비스'를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운영한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지원 체계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

소를 위해 지자체별로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발굴·기획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프로그램 접근성 한계, 자체 인프라 부족 등으로 아동의 신체적·사회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

램 개발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은 충북도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협업으로 지난해 7월 개장한 중원대학교 승마교육원을 활용해 '몸 튼튼 슈퍼키즈 승마서비스'를 운영한다.

군은 학생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 등과 연계한 승마 지식과 기술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자

기개발과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업 초기로 소수 인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을 거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5~9세 아동에게 1인당 6개월(주1회, 24회)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자원과 연계한 신규서비스를 발굴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 독거노인 응급안전 장비 추가 보급

119 자동신고 시스템... 300대

진천군은 안전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가정에 대해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안전 취

약가정에 게이트웨이, 응급호출기, 출입감지기, 화재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위급 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진천군노인복지

관)의 응급관리요원이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 대상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군은 올 상반기에만 관내 395가구에 장비 설치를 마쳤으며 하반기에 300여대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 또는 보호자는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395) 또는 수행기관(043-533-2715)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응급안전지원 장비 보급으로 돌봄 사각지대의 독거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큰 기여를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도 도내 1위

교통환경 정비 등 83.8점... '안전속도 5030' 조기 도입

증평군이 충북지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 환경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충북경찰청이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별 교통환경 위험도' 평가 결과 증평군은 83.8점으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80점 이상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평가 항목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교통신호기 설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30km/h 초과운영, 주정차 허용구간, 보·차도 미분리 구간, 교통환경 위험도 등으로, 도내 11개 시·군 평균은

74.7점을 기록했다. 증평군은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올해 상반기 4억 원을 들여 증평초, 삼보초, 죽리초, 도안초 등 4개 초등학교 주변에 차선도색, 철사 덧씌우기, 보도정비, 신호등 설치, 표지판 교체 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정비를 실시했다.

지난해에는 2억 원을 들여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데 이어 증평군 모범 운전자연합회 회원들도 매주 수요일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실

시하고 있다.

군은 시가지 차량운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조기 도입해 과속경찰서와 합동으로 2018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의 제한속도를 도심의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교통정책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홍성열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규정속도 준수와 불법주정차가 없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주)한화 보은사업장, 군에 '마더박스' 전달



(주)한화보은사업장이 14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와 함께 보은군청을 방문해 '마더박스' 100개(1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마더박스'는 속싸개, 턱받이, 손톱질리세트, 치발기세트, 실리콘젓병솔세트, 무형광아기손수건, 신생아운송도개 등 신생아에게 필요한 7종의 출산용품으로 구성됐다.

신영균 사업장은 "보은군 내 임산부의 출산을 축하하면서 아이의 건강한 양육을 응원하고 지원하고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와 함께 마더박스를 제작해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혁 군수는 "마더박스를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관심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달받은 마더박스는 보은군 보건소를 통해 임산부 및 출산모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1000만원 상당 출산용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제작

(주)한화보은사업장(사업장장 신영균)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본부장 차용기)와

함께 지난 14일 보은군청을 방문해 '마더박스' 100개(10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영동군, 10월부터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도내 최초 "너에게 주는 작은 선물" 보편적 복지 확대

영동군이 저소득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하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자를 오는 10월부터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확대 지원한다.

영동군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 주관 사업으로 11세~18세의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한하여 월11,500원의 비우치를 지원해왔다.

이에 군은 규정방침중 하나인 '복지의 맞춤형'에 맞춰 지역 청소년의 복지·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월경이 여성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으로서 개인적 보건·위생 영역에서 나아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여, 보편적 복지로 지원범위를 넓혔다.

군은 대상자 확대 지원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부 등 관련 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소요액을 편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월 평균 100여 명의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혜택을 받았

으나 대상자 확대에 따라 1,150명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영동군의 11세~18세의 모든 여성청소년이 월 11,500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입지원액을 받게 된다.

군은 매 분기초 34,500원 상당의 지역전자화폐(레인보우영동페이)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레인보우영동페이가 발급이 불가한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박세복 군수는 "앞으로도 영동군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세심한 사업들을 고민하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대리 (T.043-234-0840~2)

| 지면 | 크기 | 배색 | 금액(원) |
|-------|------------------------------|----|---------|
| 1면 | 4단 (360mm×138mm) | 컬러 | 300,000 |
| |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 컬러 | 100,000 |
| 2면~7면 | 4단 (360mm×138mm) | 흑백 | 150,000 |
| 8면 | 4단 (360mm×138mm) | 컬러 | 200,000 |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내년 최저시급 9160원... 5.1% 인상

주 40시간 기준 월 단위 환산 시 191만4440원

2022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720원에 비해 5.1% 오른 9160원으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해 논의해 최종 표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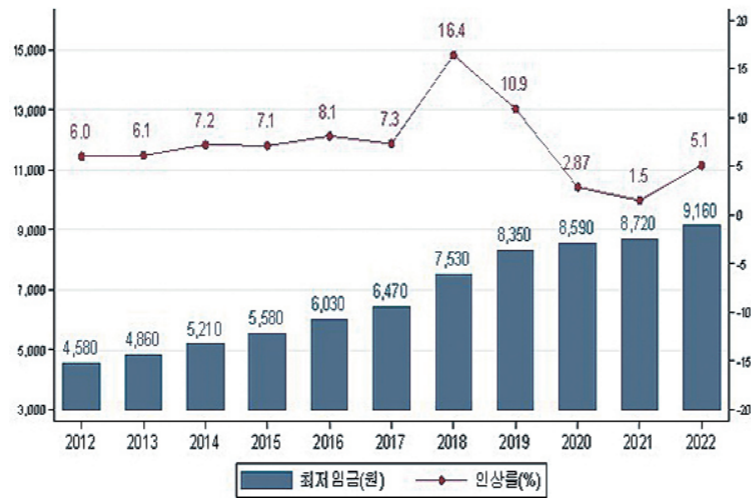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440원 인상(5.1%)된 916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의 월 단위로 환산하면 올해 대비 9만 1960원 오른 191만4440원이다.

이날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노·사가 각각 1만 320원(1600원, 18.3% 인상)과 8810원(90원, 1.0% 인상)의 제3차 제시안을 제출했고, 이어 1만원(1280원, 14.7% 인상)과 8850원(130원, 1.49% 인상)의 제4차 제시안을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해 공익위원회에 심의촉진구간을 요청했고,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등 일부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퇴장했다.

이어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심의촉진구간 내로 제시안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노·사 양측은 더 이상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공익위원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다.

이어 정회 후 이어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올해 대비 440원 오른(5.1% 인상) 시간급 9160원으로 표결을



선포차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발하며 퇴장해 기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기권자 포함 23명이 출석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한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이번에도 결정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8만~355만명이고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

센터 등 기관을 서로 연계해 '온마음이 함께 돌보는 아동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정부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소득·주거 안정망을 확대하고, 확대피해 아동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 설치도 추진한다.

정부는 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등의 문화활동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연간 10만원의 문화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해 문화 예술과 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담은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 돌봄 수어영상도 제작·배포해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영상은 감염병 상황에서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활 수칙,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비포옹법·심신의 안정을 위한 복식 호흡훈련, 근육이완훈련 방법 등을 소개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www.nct.go.kr)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호아동 복지시설 거주, 만 24세로 연장

정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발표

보호 종료 시에도 5년 간 자립수당 지급

보호아동은 앞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호가 끝나더라도 5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만 18세가 되면 보호기간이 끝나 아동보호시설에서 나와야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시설에 머무르거나 보호아동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후에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온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보호종료 후 3년간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은 앞으로 5년간 지급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정부가 1대1로 매칭하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이 1대2로 확대되고,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초기 정착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자립정착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군 북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 종료 5년 이내'라는 지원요건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고, 대학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 기회를 넓히며, 심리상담·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를 운영, 실태조사와 당사자·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 돌봄격차 해소 위한 '1+4 지원'

국내 복지서비스 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양육비 지원·노인 의료서비스 제공·아동 돌봄체계 구축 등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벌어진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한부모, 노인, 장애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통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4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해를 넘겨 이어지는 가운데 복지관, 경로당 등 각종 사회 복지 서비스 운영이 제한되면서 가정환경,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돌봄 문제는 더욱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17

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돌봄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돌봄의 공공성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수를 확충해 현재 32% 수준인 공공 보육 이용률도 내년 40%, 2025년 50% 등으로 단계적으로 올려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 기반에 더해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는 '1+4 지원 체계'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한부모 가정 가운데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한도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5~34세 청년 한부모 가정에는 연간 60만~120만원 수준의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 중이다.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돌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가칭)의 도입이 추진된다.

공립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방문 요양·목욕·간호 등 여러 서비스를 혼합해 제공하는 '통합 재가급여' 또한 도입할 예정이다.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정도의 최종 중 상태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 지원 서비스 가산 수당을 개선한다.

아동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 자체가 쉽지 않았던 만큼 앞으로는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

코로나우울, 수어통역 심리지원 서비스로 마음 돌보세요

6일부터 줌·국가트라우마센터 등서 수어통역 심리상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 심리지원 서비스를 6일부터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코로나 우울에 대응해 모바일 앱, 문자 상담 등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은 원활한

심리상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한국농아인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수어통역사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하는 수어통역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불안,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와 마음건강 회복 및 스트레스 완화 방법 등에 대해서 정신

건강 전문가가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청각·언어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등이 국가트라우마센터 카카오톡 채널·전자우편(ptsdk@korea.kr), 가까운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낮 12시~오후 1시 점심시간 제외)하다.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거나 사전 신청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영유아 해친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5년'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정인 보육료 지원신청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아울러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또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 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를 정하고 어린이집에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원장에게는 위반 때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밖에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고, 보육료 지원 신청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이와 함께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www.mohw.go.kr)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 상담 제공

'러브플랜' 홈페이지 통해 전문가 상담서비스 제공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정보제공 홈페이지 '러브플랜'(www.loveplan.kr)이 12일부터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그간 정보 제공 중심이던 기존의 홈페이지를

개편해 임신·출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전화·화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서적 지원과 지원 기관을 연계해주는 사

회복지 분야, 임신 유지·결절을 비롯한 성 건강 전반에 대한 건강 상담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사회복지사, 심리상담 전문가가 상담해준다. 사용자는 전화, 온라인, 대면(화상) 등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온라인 게시판은 24시간 운영되며 전화(☎1644-7373) 및 대면(화상) 상담은 사전예약 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위촉 기준

-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4. 신청 및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과 김민지 대리

전화 043)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충북공동모금회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지원

도내 43개 기관들에 1억9000만원 상당 지원금 전달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구 신학기 필요물품도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는 도내 아동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 43개 기관들에게 1억9000만원 상당의 방학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금을 전달했다. 모금회는 지난 16일 2021 복권기금 방학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기관 수행교육과 전달식을 가졌다.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전달식으로 펼쳐졌다. 이 사업은 방학기간 프로그램·체험 학습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신학기 필요물품을 지원한다. 이번 선정된 43곳 외에 복권기금을 통해 아동청소년 야간보호 사업을 하는 34곳에서 동일한 방학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팀장이 지난 16일 온라인으로 복권기금 방학프로그램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모금회 관계자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기

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주목령사회복지관, 삼계탕 500인분 나눔



목령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준우)은 7일 오창호수병원과 초복을 앞두고 누릉지 삼계탕 500인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어르신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오창호수병원 후원으로 진행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산하 목령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준우)은 7일 초복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며 보양식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오창호수병원(이사장 김충범)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자원봉사자들

이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각 가구에 전달하고 안부도 확인했다. 김충범 이사장은 “무더위와 코로나19로 힘든 어르신들이 삼계탕을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 더불어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우 관장은 “지역사회 복지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함께해주시는 오창호수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희망을 갖고 힘내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증평학부모연합회, 희귀병 학생 의료비 기탁

형성중 A군에 3580여 만원 전달 기금 마련 위한 ‘일일차집’ 운영도 “소의 아동 위해 선한 영향 끼칠 것”



증평학부모연합회는 14일 형성중학교를 찾아 희귀병을 앓고 있는 A군의 할머니에게 성금 3천58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증평학부모연합회(회장 송미영)는 14일, 증평군 형성중학교에 희귀병을 앓고 있는 A군을 위해 써달라며 3천5백8십여 만원을 증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영수)에 기탁하였다. 증평 형성중학교에 따르면 A군

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섬유이형성증과 골모세포증이라는 희귀

병을 앓기 시작하여 거동이 불편하지만, 할머니와 학교 친구들의

도움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증평학부모연합회는 최근 A군을 돕기 위해 형성중학교 학부모회, 형성중학교운영위원회와 ‘일일차집’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지역 내 기관단체에서 많은 참여가 있었다. 전달식에서 송미영 회장은 “A군을 돕기 위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증평학부모연합회는 우리 지역의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체점검

운영관리 등 세부지표별로 확인... 결과 따라 컨설팅 진행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229개 지자체 및 621개의 수행기관에 대한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11개 지자체 및 22개의 수행기관이 해당된다. 이번 자체점검은 지난 2020년

에 수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자체점검은 운영관리, 특화서비스 제공절차, 사업관리, 사업추진 결과 등 세부지표별로 진행되며, 향후 자체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중앙추진단의 종합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추진단에서 수행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토대로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내실화를 다지고 대상자에게는 더욱 효과적이고 만족스러운 맞춤형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14일 이전 개소식을 개최하여 참석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사무소 이전 개소식

접근성·편의성 향상... 음성읍 중앙로 40번길 9-1 위치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진용)는 14일 음성읍 중앙로 40번길 9-1, 2층으로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조병욱 음성군수와 최용락 음성군의회 의장을 포함해 군의원,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장, 기관·사회단체장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진행됐

다. 협의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승강기가 없는 건물의 4층에 있어 몸이 불편하거나 연로한 군민들이 방문하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이전으로 2층에 사무소를 자리 잡아 군민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이진용 회장은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협의회 사무소 이전을

도와준 음성군과 군민께 감사드립니다”며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아진 사무소를 지역주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병욱 음성군수는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는 항상 군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앞장서 헌신하는 단체”라며 “새롭게 사무소를 이전한 것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음성군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우석대-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업무협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증진 위해 ‘온 힘’



우석대 진천캠퍼스와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열)는 14일 진천캠퍼스 미래센터 4층 총장 집무실에서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했다.

우석대 진천캠퍼스와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열)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했다.

14일 진천캠퍼스 미래센터 4층 총장 집무실에서 열린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남천현 총장과 유열 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 10

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 위탁 운영 기관 컨설팅 지원,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포럼 및 전문가 초청 강연회 공동 개최, 다문화 가정 및 탈북민 대상 상담 지원 등이다. 남천현 총장은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대학교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치매안심등불로 실종예방해요”

청주시 흥덕보건소 ‘안심등불’ 10곳 확대 지정

청주시 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의 상점과 기관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등불 10곳을 확대 지정한다. 12일 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따르면 치매안심등불로 지정된 상점은 평소 지역주민에게 치매 정보를 제공해준다.

치매환자 발견 시 임시보호 장소로 운영돼 치매안심센터·경찰과 연계되는 치매환자 실종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이진숙 흥덕보건소장은 “치매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지역 내 상점들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실종치



매환자를 줄이고 치매환자가 함께 살아가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상점, 기관들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애주기별 검색이 편합니다”

01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 고용및직업
- 주거지원
- 보육및교육
- 의료및건강
- 요양및돌봄
- 정신및심리정서지원
- 문화및여가
- 권익보장및법률
- 일상생활지원
- 기타

02 지역을 선택합니다

- 청주시
- 충주시
- 제천시
- 보은군
- 옥천군

03 생애주기를 선택합니다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
- 성인
- 노인

04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노인돌봄서비스/종일/노인

노인종합복지관/9988행복나눔미/종일/노인

노인요양병원/노인장기요양서비스/종일/노인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명, 이용시간, 이용대상 까지 한번에 검색되는 ‘충북복지넷’



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34개 정부기관 166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보건분야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및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 개편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2021년 9월부터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2021년 10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단, 초기에는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등 일부사업의 신규 신청자 또는 수급자부터 실시 또한,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사업별 기준 정보를 시스템이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먼저 찾아서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에 맞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개편에 따라보기 쉬운 화면 구성과 함께 '나의 복지현황(가칭복지지갑)'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의 확대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보장을 강화한다. 이에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목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현행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이 되었으나, 국민연금 수령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지급대상은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수급권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개정 내용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2019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한의" 분야로 확대하여 한의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고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참여기관 모집은 7월에 실시하며, 시범사업은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의 방문진료 활성화로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기반이 확보될 것 기대한다.

●건강친화기업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건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 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10~15개 기업을 모집하여 인증 심사지표 적정성 점검 등 내년부터 사업을 위한 운영체계·절차상 보완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시범사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2021년 6월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로 설치·운영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기존) 2개소(국가, 영남권) → (변경) 5개소(국가, 영남권 +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에 국립정신병원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사고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제공한다.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감염병 자가·시설 격리기간이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을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 격리기간을 백신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시설 격리 기간을, 예방접종상황 등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최대잠복기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 분야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의 사유 제한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의 사유가 제한된다. (21. 1. 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의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된다. 7월 1일부터 시행시 기존 적용제의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 인받아야 합니다. 특고 적용제의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 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한다. *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30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시행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Before 그동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공동센터로 연계되어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파악과 지원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After 초중학교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면 사전동의 없이도 공동센터로 연계되어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177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림판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처벌 **시행일 : 2021년 9월 24일**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그림판 처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위장수사로 처벌

· 텔레그램 비공개 채팅방을 기밀로 수평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4.16. 권역별 지원)의 추진 과제로서,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추진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178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시행일 : 2021년 7월**

Before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발송 수 있으며 모바일 고지를 알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재발송 하고 있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는 카카오톡(1차) - 네이버(2차) - 우편(3차) 발송 합니다.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179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발생시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시행일 : 2021년 7월 13일(성폭력 사건) 2021년 10월 21일(성희롱 사건)**

Before 지금까지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 의무는 없었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공공부문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에 대한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합니다.

고용노동부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Before 그동안 장시간 근로 권율 개선을 위한 제도를 신설 운영하였습니다.

After '21년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4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하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12개 직종

보통직종: 보험대상, 특수직종: 보험대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

· 보험대상 직종: 보험대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

경찰청 자세한 내용은 p.188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Before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 장소에 한하여 주정차를 금지하였으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면하기 정지되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After '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 주정차가 금지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특별교통 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한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아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한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상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 :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상한) 지원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에 재난 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지원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된다.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의료기관 으로부터 환할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할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할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할이 가능하다.

여성·육아·보육분야

●지역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개원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지속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 기회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지역 청소년치료재활센터(대구 달성군)를 건립(17~21년)하여 2021년 하반기에 개원한다. 그동안 정서·행동문제(주의력 결핍 과잉행동(ADHD), 우울, 불안, 반항행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청소년을 위한 기숙형 치유시설은 경기도 용인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유일했으나, 대구시 달성군에 1개소를 추가 개원하여 중앙과 지역센터 간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에 거주하는 정서행동문제 청소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치유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등 도입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명단공개,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3일 이후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채무자부터 적용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을 삭제 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영상을 삭제 지원이 강화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불법촬영물 등 유류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지원 요청이 있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경우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없이도 국가가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대응이 가능해진다.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교육 분야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확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 국민 대상 고등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2. 공포, 2021.7.13. 시행)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교직원 등의 임명 및 정원 기준, 학교규칙, 대학조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국립 원격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되었다.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3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지광장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돌봄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가?

복지포럼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 절실



김미라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돌봄지원과장

최근에 마주하게 되었던 안타까운 사례이다.

초등학생 1명, 유아 2명의 세 자녀를 둔 모자가정으로, 낮에는 자녀의 학교와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진료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계를 위해 낮보다 시급이 높은 심야시간에 근로 활동(19시~익일 06시)을 하고 있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만 가정 내 두고 생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다. 양육과 생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이용자의 의지를 볼 수 있었고, 어떻게든 이

가정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우리 센터에서 운영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연계해보고자 해당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했을 때 필요한 월 이용료를 계산해보니,

1일 이용료가 40,150원이고, 30일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204,500원이 소요된다. 현재 시급 기준으로 월 소득은 2,354,400원 정도이다. 야간 근로로 조금은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지만 일반 시급 기준으로 월 소득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로 50%가 지출되는 상황이다.

전체 소득의 50%가 아이돌봄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을 이용자에게 맡을 건넬 수가 쉽지 않았고, 다른 방안을 찾아 안내하였지만 그 역시 여의치 않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 찾아오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에서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돌봄 관련 이용료를 지원하여 비교적 낮은 이용료로 이용이 되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이용자의 신뢰

도가 높은 것은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소위 취약계층은 비용에 대한 이용장벽이 높아 진입조차 어려움을 갖게 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아동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는 아동 연령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갖가지 사업들이 운영되어지고 있으나 해당 가정과 같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이에 피해를 보는 대상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다. 해당 가정의 아이들은 결국 양육자가 생업전선에 있는 그 시간에는 '방임'인 것이다. 어떤 전달체계로도 해소가 되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불안정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가? 비단 이 가정에만 해당 되는 일이겠는가?

2020년 9월, 인천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화재가 발생한 안타까운 비보를 접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 학대 의심(0.08%),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21.5%)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리

고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조치들이 쏟아졌

다.

사회적 변화는 이산화되고 사전화 되어야 가능한 것인가?

누군가 소리를 낼 때 그 소리를 진정성 있게 들어줄 수는 없는가? 우리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만들어지는 조치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만 "왜, 이제야?", "지금까지 몰랐을까?"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탄한다.

우리 아이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기를 바라는가? 또한 우리는 어떠한 장애 때문에 아동 돌봄이 등한시 되어 지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무엇으로도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노력은 우리들의 몫이다. 여러 제도적 장치와 조치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완벽할 순 없다. 그렇다 할 지라도 아동 돌봄의장벽의 높이를 점점 낮추기 위해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내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또한 누군가의 소리가 작을지라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다면 한 번 정도는 귀를 기울여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졌으면 한다.



이윤주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아동학대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일 보도됨에 따라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는 41,389건으로 전년 대비 약 13.7% 증가하였고, 아동학대 판단사건은 30,045건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로, 매년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아동학대조사 등 공공화에 힘쓰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균형 있게 안정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그러나 229개 시군구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된 곳은 71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가 관할하는 지역이 3~8개 정도 관할하다보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현장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여건 개선 지원 내용은 명시되어 있었으나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업무 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때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당직 근무 및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원하면서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의 업무를 함께 수행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주로 만나는 피해아동들의 경우, 학령기인 아동이 많으며 경제활동 중인 보호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저녁 시간에 대면상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날들이 많다. 2020년 기준 상담원 1인당 담당하는 사례는 약 64건으로 정부에서 권고하는 1인당 32건을 상회하는 수치를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인력 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75.6%는 가정 내 보호자에 의해 발생되며 학대피해 아동 중 83.9%는 원가정에서 보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를 활용하여 학대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구성원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양육기술, 감정조절, 관계개선, 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은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위한 지원 내용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 학대 유형 등 맞춤형 서비스 실천이 이루어져야하므로 고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신규·보수교육 시간 등 지원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나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방안이 부재하며, 아동학대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교육훈련체계 마련과 전문 슈퍼바이저 양성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아동은 성인과 같이 동등한 인격체이며, 폭력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즉, 국가에서는 어떠한 처벌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잘못하면 혼내고 맞아야지', '체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대상으로 교육 이수체계 마련 및 대규모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보호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 소중한 우리 아동들을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한다.

현장의 목소리

아동을 위한 진정한 돌봄이란



김양선

로템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지 13년이 되었다. 필자가 그동안 만난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거나 공격적인 아이들, 과잉행동으로 주변을 산만하게 하는 아이들, 자존감이 하락하여 피해의식을 가진 아이들, 불신의 눈초리로 주위를 경계하는 아이들 등, 어른들의 기준으로 보면 문제 행동 투성이고, 미움 받아 마땅한 아이들이라고 평가절하 될 만한 아이들이었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 비춰진 아이들은 그저 '나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라고 간절히 애원하며 애정과 인정을 갈구하는 안쓰러운 아이들의 모습이 있다. 이 아이들은 어른들에 의해 무참하게 재단되고, 과소평가된 아이들로

여겨졌다. 아이들 마음에 얼마나 생체가 낫으면 자신을 방어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칠까 하는 잔한 마음이 들었다.

이 아이들은 그저 어른들의 성공과 성적중심의 획일적인 기준과 평가가 낯은 희생양이었다.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어른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종종 인구에 회자된다. 그렇다 아이들의 문제는 곧 어른들의 문제이다.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 일거라 생각한다.

필자는 청주법원에서 가사상담사로 위촉되어 자녀양육안내 교육과 의무면담을 겸해서 담당하고 있다. 심각한 갈등 등으로 인해 이혼하려 온 부부들을 보며 그 자녀들을 떠올리게 된다. 아이들의 선택이 아닌 순전히 어른들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상처를 떠안고 믿음하게 될 아이들... 부모의 갈등 속에서 괴로웠을 아이들... 그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잠재적 돌봄 수혜자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생체가 나서 으렁거리는 것은 결국 어른들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고 싶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조부모가 키우고, 열악한 경제적 환경에서 키우느라 그 노고가 큰 것은 이해하지만 아이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하며,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지지했다면 이렇게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파리를 틀지는 않았을 것이다.

출발부터가 뒤처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 센터의 아이들을 보며 적어도 이 아이들이 누려야 할 것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해 줘야한다. 있는 그대로의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며 아동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진정한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같은 기준으로 몰아 객관적 평가라는 미명아래 아이들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꽃들이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가 있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 빛깔과 향기가 다를 뿐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 주고 자신의 능력을 한껏 펼치며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야 한다.

아이들에 대해 평가 하는 어른들의 판단과 기준이 성적표와 같은 수치에 국한되어서는 곤란하다. 피어보지도 못하고 이미 결정된 것인 양 취급해서 안 될 일이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속담은 이미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론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 불편하다. 아이들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저마다의 능력을 품고 있다. 아직 보석으로 세공되지 않은 원석 그 자체이다. 보석으로 세공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그 자질을 발견해 주고 이미 갖고 있는 능력과 가치를 찾아주는 일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잘 돌보며 교육하는 일일 것이다.

아이들은 각각의 능력과 특성을 달리고 가고 태어났다.

곰, 토끼, 양, 원숭이, 기린, 사자, 하마, 코끼리 등과 같이 생김새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능력도 다른 동물들에게 한 줄로 세워놓고 나무에 누가 먼저 오를지 경주를 하게 한다면 누가 가장 유리할까? 아마도 나무타기를 잘 하는 원숭이 일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경주를 시키고 오직 한 가지 능력을 요하는 학업성취 만으로 줄뿔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 성적표가 후광효과를 내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사회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원없이 발휘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토끼는 토끼처럼 빠지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봐 주듯이 우리 아이들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 주며 지지해 준다면 외면과 내면이 모두 건강하고 밝고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할 것이다.

아이들은 모두 그 자체가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모습을 띠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소유의 그늘에서 벗어나 그 존재 자체를 존중받고 인정받는다면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자주 귀 기울여 주며, 보듬어 주는 하루가 되길 바래본다.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 달의 법률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저는 얼마 전 청주에서 서울로 이사온 학생입니다. 원룸 전세를 알아보다가 위치도 괜찮고 깨끗한 신축 원룸을 소개받고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여 보니, 원룸 시세가 1억1,000만원 정도 하는데 8천만 원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근저당권 설정일은 2021년 5월 13일입니다. 제가 이 원룸을 보증금 3,500만원에 임대차계약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미 설정된 근저당액수가 적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원룸을 위 조건으로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위 말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목적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규정한 권리로 실거주와 전입 신고를 통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져야 최우선변제권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지역별로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를 받는 금액이 상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은 1억 5,0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세종시, 용인시 및 화성시는 1억 3,0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7,0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 5,000만 원, 서울을 제외한 세종시, 용인시 및 화성시는 4,3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는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입니다(2021. 5. 1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위의 사례에 나오는 서울의 경우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가 소액임차인이 되고,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

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2021. 5. 11. 개정 시행령 기준).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5,000만 원 한도에서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최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어 보증금 전액(3,500만원)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가능합니다. 만약 위 원룸이 청주에 소재하고 있다면 보증금이 6,000만 원 이상이면 소액임차인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최우선변제의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1. 5. 13. 당시 적용되는 시행령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1. 1. 1.이라면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3,700만원 한도에서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액임차인은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역사회봉사단

스마일 봉사단, 환경 정화 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스마일봉사단(회장 박종득)은 지난 17일 마원금관숲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봉사단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방

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봉사활동에 임했다.

스마일봉사단은 2014년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종득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봉사활동 진행이 어려워 작지만 큰 나눔을 실천해준 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cbswin1004@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제 4회

충청북도 인권작품 공모전



응모기간

2021. 8. 2.(월) - 8. 30.(월) 18:00까지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가능

응모자격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개인 또는 3인 이내 단체 · 최대 2개 응모 가능

공모분야

2개 부문 (짧은 시, 포스터)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E-Mail kms880813@korea.kr

공모내용

우리 생활 속 '인권 이야기'

시상내용

총 4,000,000원 16점 시상

문의

충청북도 인권센터 043-220-272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도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도 홈페이지 > 소통광장 > 충북인권센터 > 인권콘텐츠 > 인권행사 및 교육안내 > '37번' 게시물

복지정보 제공

[코아드]코아드 자문료 무료설치 캠페인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신청대상: 사회취약층을 위한 시설이라면 제한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코아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 접수하면 완료(www.coadoor.com)
■ 선정방법: 매월 25일 접수 받은 사연을 검토하여 매월 1곳 선정
■ 안내문의: 189-7081 또는 coad@coadoor.com 으로 문의 가능

[여승사회복지재단] '함께독서' 도서 무료배포 안내

- 보급대상: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
■ 보급권수: 1기관 최대 2권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hildlovesky@hanmail.net)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도서 보급 공지사항- 신청양식 확인- 이메일 발송
■ 신청기간: 수시
■ 배송관련: 택배비 기관 부담(착불 4,000~4,500원)
■ 유의사항: 기존에 신청한 기관은 제외
■ 문의: 02-553-3488

[바보의나눔]코로나19 관련 cpbc라디오 모금 방송 사연 대상자 추천 안내

- 방송명: cpbc라디오(평화방송) 힘들면 전화해
■ 방송일시: 매주 월~토 15시~16시
■ 방송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고 ARS 및 무통장 모금 진행 (방송일로부터 2주일)
■ 진행 과정: 사연대상자 추천서류 메일접수 → 사례 선정 여부 안내 → 방송 녹음 진행(대상자/기관 담당자) → 방송 및 모금 진행 → 모금액 집계 및 지급 → 사용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신청공문 및 대상자 추천서(양식참조), 통장사본 각 1부
■ 제출기한: 상시접수(2주에 사연자 1명 발송)
■ 기타: - 모금액 전액을 대상자에게 지급함(ARS 수수료분 제외)
- 사연 대상자 추천은 사례관리 가능한 기관의 추천에 한해 접수(지역제한 없음)
- 라디오 방송으로 대상자의 목소리가 노출됨(가명 사용) → 대상자 동의 필수
■ 문의: 나눔사업팀 하서이 (02-727-2511 /apple@babo.or.kr)

[KT&G복지재단] 2021년 수리소리마소리(청각장애인후원사업) 후원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저소득 청각장애인(수급자, 차상위, 일반저소득)
■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후원물품(*기관사업비, 기관후원물품 제외)
■ 지원절차: 후원금 신청 및 서류접수(매월 1일 ~ 20일) → 선정발표(매월 마지막주) → 선정기관에 후원금 입금(2주 이내) → 후원금 사용내역 결과보고 제출(1개월 이내)
■ 제출서류: 홈페이지 (www.ktnghwelfare.org) 참조
■ 지원금액: 보청기, 인공와우 소모품 등 후원물품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KT&G복지재단] 2021년 행복가정학습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매월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저소득 (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가정의 학령기 아동 · 청소년 (만7세 이상 ~ 만18세 이하)
■ 지원내용: 학습과 관련된 물품 구입비 10만원 지원

- 지원가능물품: 학습품, 문제집, 일반도서, 교복, 책가방, 체육복(학교지정), 실내화 등
■ 선정발표: 매월 마지막주 중 발표
■ 지원시기: 선정발표 후 2주 이내, 기관명의 후원금 통장으로 입금
■ 신청방법: 매월 20일까지 온라인 사연신청 (복지기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 개인신청 불가)
■ 참고: www.ktnghwelfare.org

[본사랑재단]2021년 결식아동 분죽,본도시락 식사권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장애, 저소득, 결혼가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
■ 지원내용: 지원대상 아동에게 분죽, 본도시락 식사권 10매 지원(1매 5,000원 / 총 10매 50,000원 지원)
■ 신청대상: 지원대상 아동의 관계 기관 및 추천인
■ 접수기간: 2021.12.31.까지
■ 선정발표: 신청서 확인 후 실무팀 회의를 통해 선정하여, 개별 연락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http://naver.me/x81WJ4i6)
■ 문의: 02-734-6233, bonlove09@hanmail.net

[아산사회복지재단]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돕는 'SOS 복지지원사업' 안내

- 대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나 민간단체 지원이 신속히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상시
■ 신청방법: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 신청서 작성 이메일접수(asan-sos@amc.seoul.kr)
■ 문의: 02-3010-2566,2585

자원 봉사자 모집

▶ 초중생 영어 학습지도

관리센터: 에덴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254-9391

▶ 조리업무 봉사

관리센터: 청주청소소년센터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231-2676

▶ 건강검진 문진표작성 도우미 및 안내

관리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299-5734

▶ 어르신 한글지도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266-4761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216-1365

▶ 진통공원 환경미화

관리센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216-3060

▶ 말반찬 배달 봉사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835-4288

▶ 녹음도서 모니터링

관리센터: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237-5544

▶ 유아성폭력예방인형극 공연 봉사

관리센터: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216-1391

▶ 공예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증평군장애인복지관
활동기간: 7.1~8.31
전화번호: 043-835-4288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복지/만/평

젠더

이창신 www.bokmani.com



복지는
변화젠더입니다.
서로 다른 귀경의 장비를 연결해 주는
젠더처럼 각기 다른 사랑의 마음을
연결하는 젠더같은 삶을 살고싶다.
사회복지사 이성중님의 글